

2015년 글로벌 M&A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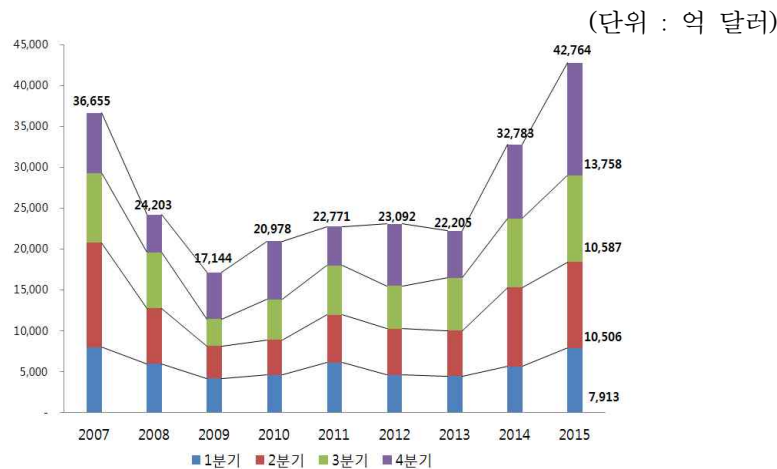
KOTRA 글로벌 M&A 지원단, 16.2.29(월)

1. 2015년도 전세계 M&A 동향

□ 2015년 M&A 거래액은 약 4조 2764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증가

- [규모별] 건당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거래가 주로 많아져 10건을 기록하였으며, 총 8,146억 달러로 전체 M&A 총 규모의 19%를 차지
- 2014년(2,459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이며, 2007년보다도 10.4% 증가
- 건당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2건이 있었음
 - . 11.11일 Anheuser-Busch InBev(벨기에)가 SabMiller(영국)를 1,203억 달러에 인수/
 - 11.23일 Pfizer(미국, 제약)가 Allergan(아일랜드)를 1,837억 달러에 인수

〈2007~2015년 분기별 M&A 규모〉



- [산업별] 에너지(-5.5%) 분야를 제외한, 제약 바이오(51%), 소비재(54%), 금융(105%), 화학(16%)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증가

- 에너지 분야가 6,369억 달러로 전체의 14.9%로 1위를 차지

- [지역별] 미국의 M&A가 전 세계의 46%를 차지

- 전체적으로 M&A거래가 활발하였으나, 유럽의 M&A형 해외진출이 전년대비 27.6% 감소, 중남미의 M&A 규모도 52.3% 감소되었음.

- 일본의 M&A규모는 전년대비 91.6% 증가했고 금융 분야의 M&A가 활발

〈지역별 M&A 동향〉

(단위: 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¹⁾	Inbound	Outbound	주요 산업
미국 ²⁾	1조 9,742억 (40.6%)	4,517억 (19.7%)	4,244억 (38.2%)	제약바이오 (2,969억/28.8%)
유럽	1조 990억 (22.4%)	5,122억 (54.3%)	2,690억 (-27.6%)	제약바이오 (2,159억/85.2%)
아시아 (일본 제외)	9,278억 (43.7%)	1,054억 (20.1%)	1,545억 (68.8%)	에너지 (1,426억/50.7%)
중남미	625억 (-52.3%)	319억 (-60.2%)	67억 (-72.7%)	소비재 (137억/57.2%)
일본	616억 (91.6%)	120억 (54.2%)	890억 (67.4%)	금융 (137억/340.8%)
중동 아프리카	473억 (-20.9%)	172억 (-3.7%)	754억 (136.2%)	제약바이오 (146억/2468%)

1) : 전체는 Inbound M&A와 국내 M&A의 합

2) : 북미 중 캐나다의 M&A는 미미한 수치로 북미 대신 미국 M&A로 표시

출처 : Mergermarket

2. 아시아 M&A 동향 (일본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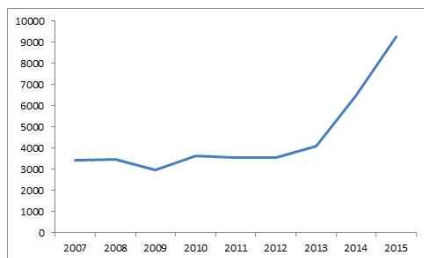
[1] 아시아 M&A 동향

□ 아시아의 M&A 규모는 2년 연속 40% 이상 확대

-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의 M&A가 전체의 15.4%로 1위를 차지
- 중국이 아시아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60.2% 증가
- 유로약세로 인해 중국의 유럽발 M&A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올해 총 76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이는 약 280억 달러 규모임
- 중국의 검은 월요일 등 주식시작의 변동으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의 M&A 투자유입은 20% 증가하였음
- 총 102억 달러에 달하는 63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2014년(150억 달러, 105건)에 비하면 32% 감소한 수치

<아시아의 연도별 M&A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 Mergermarket

- 주요 5대 거래는 Cheung Kong Limited(홍콩)가 Hutchison Whampoa(홍콩, 통신사)를 포함하여 SK C&C(한국)가 SK Holdings(한국)를 인수하는 등 전부 국내거래였음

[2] 중국 M&A 동향 (홍콩포함)

□ 중국내 업체 구조조정을 위한 M&A가 활발

- 중국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격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M&A는 2,698억 규모의 1,972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전년대비 62.2% 증가함
- 50억 달러이상의 대형거래가 17건으로 M&A 붐에 기여함
 - 홍콩 대부호 리자칭 회장의 기업재편으로 인해 2015년 두 개의 가장 큰 거래가 성사
 - . Hutchison Whampoa(홍콩) 인수(408억 달러)와 Cheung Kong Property 홀딩스(홍콩)의 부동산 사업부문 분할거래(349억 달러)
 - 하반기에 M&A 거래의 연속을 강화한 대량의 중국 국가 소유의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음
 - . China Tower Corp(중국)의 China Mobile(중국), China Telecom(중국), China Unicom(중국, 337억 달러)인수 등이 있음
- 2015년에 TMT(전자, 미디어, 통신)는 화학 분야를 제치고 가장 활발한 M&A거래가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인터넷 거물인 Baidu, Alibaba, Tencent (집합적으로 BAT라고 알려진)가 주도하여, 한 해 동안 220억 달러에 달하는 29개의 거래 성사
 - . Alibaba(중국)와 Tencent(중국)는 Didi Kuaidi 제작을 위해 택시 호출 앱을 합병하였고, Tencent는 선별광고 웹사이트인 58.com(중국)의 라이벌 Ganji.com(중국)을 인수

<2015년 중국의 M&A 동향>

	전체	국내	Inbound	Outbound
금액(억 달러)	7,401	5,964	334	1,103
전년대비 증가율(%)	30.4	71.0	-15.7	85.8

출처 : Mergermarket

□ 아시아의 지역으로의 투자 감소로 중국으로의 M&A형 투자유치는 감소

- 인바운드 M&A 활동은 334억 달러 규모로 전체 158건의 거래 성사
- 작년(396억 달러, 218건) 대비 15.7% 감소
- 아시아의 지역으로부터의 M&A형 투자유치는 102억 달러 규모의 63건의 거래였으며, 이는 2014년(150억 달러, 105건)에 비하여 32% 감소
- 특히 중국의 증시 악재가 시작된 이후인 4분기에는 4.9억 달러 규모의 M&A 거래가 발표되었음

<2007년 ~ 2015년 중국의 Cross-Border M&A>



출처 : Mergermarket

매일경제(1.14) 뉴스 발췌

2015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전년대비 6.4%로 증가한 1,262억 달러였다. 중국시장에 M&A로 투자한 외국기업은 전년대비 14.4% 늘어난 1,466개사로 거래규모도 137.1% 급증한 **177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 M&A 투자가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3%에서 지난해 14.1%로 늘었다.

<중국 상무부 1.14일자 발표>

□ 중국과 홍콩의 PE는 바이아웃과 Exit 활동 모두 사상 최대

- PE 바이아웃 규모(420억 달러, 104건)은 전년대비 17.9% 증가
- Exit 활동은 258억 달러에 달하는 72건의 거래를 기록하였고, 이것은 2014년 147억 달러 규모의 92건과 비교하여 증가
- 특히 TMT 분야는 전체의 47.2%와 32.9%를 각각 점유

[2] 우리나라의 M&A 동향

□ 우리나라의 2015년 M&A는 875억 달러규모의 362건의 거래 성사

<2015년 우리나라의 M&A 동향>

	Domestic	Inbound	Outbound
금액(억달러)	808	67	36
전년대비 증가율(%)	39.2	-64.7	14.8

출처 : Mergermarket

- 우리나라의 총 M&A 규모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9.4%를 차지
- 올해 M&A는 주로 2분기에 왕성했으며, 전체의 51.1%를 점유
· SK C&C의 SK holdings(24억 달러, 4월),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11억 달러, 5월) 합병 딜 등이 2분기에 성사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67억 달러 규모의 49건의 M&A딜이, M&A형 해외투자의 경우 36억 달러 규모 47건의 딜 성사
- PE의 Buyout딜은 2014년 99억 달러(38건)에서 136억 달러(52건)로 38% 증가하였으며, Exit딜은 작년에 78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64.8%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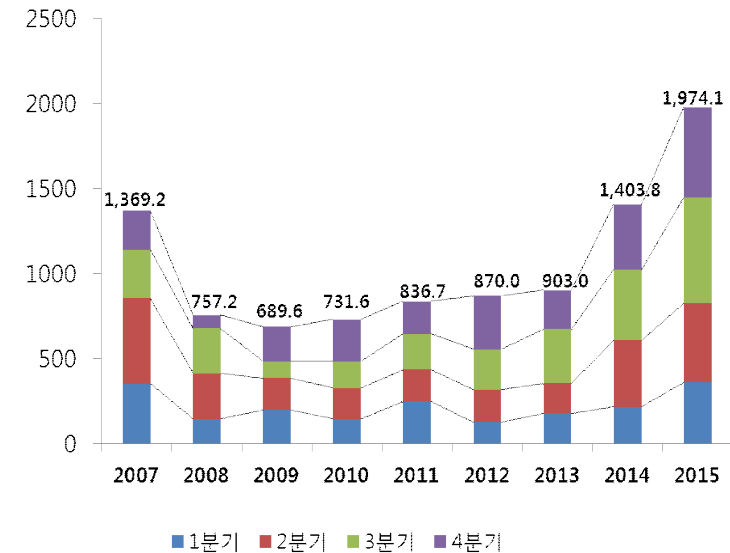
3. 미국 M&A 동향

□ 거래규모는 1.97조 달러로 글로벌 M&A 거래 규모의 46.2%를 차지

- 4분기에 거래 둔화로 거래규모가 3분기 대비 14.9% 감소하였으나, 2015년 거래규모는 2014년 비교 40.6%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
- 저금리와 동반된 건실한 경제성장은 M&A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
 - 현금과 주식 거래는 전년 대비 43.5% 증가하여 6,998억 달러에 이름
- 제약·의료·바이오테크 분야가 전체 규모의 1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 에너지 분야는 거래규모가 전년대비 23.6% 감소했으나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
 - 제약·의료·바이오테크 분야 중 헬스케어 부문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거래가 일어남
 - . Anthem(미국)의 504억 달러 규모 Cigna(미국) 인수, Aethna(미국)의 266억 달러 규모의 Humana(미국) 인수 등이 있음
 -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윤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합병을 추구하여 손실 비용을 절감함
 -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대기업들이 같은 분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이용하여 흡수 합병함으로써 자신들의 규모를 키우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웃바운드 거래 또한 4,244억 달러 규모의 1,301건을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38.2% 증가함
 - 아웃바운드 거래에서 제약·의료·바이오테크 분야가 46.4%를 차지함
 - . 가장 큰 거래는 Pfizer(미국)가 Allergan(아일랜드)을 1,837억 달러에 인수 한 사례임

- 아일랜드와 영국의 낮은 법인세율은 많은 미국 기업들을 유인하여 아일랜드로는 1,907억 달러 규모 36건, 영국으로서는 618억 달러 규모의 244건이 있었음

〈미국 분기별 M&A 규모〉



출처 : Merger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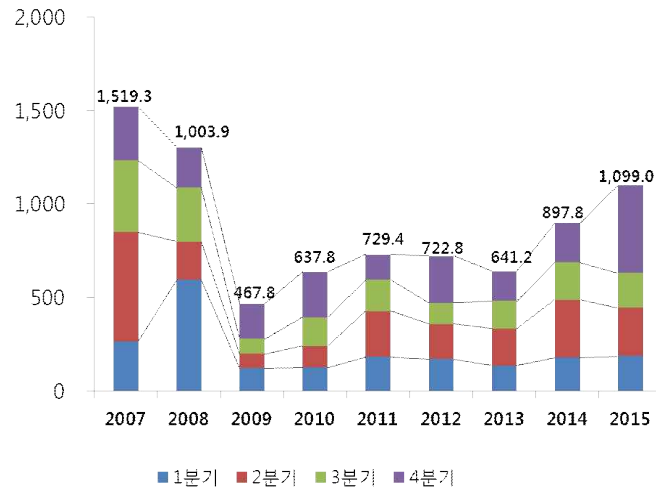
4. 유럽 M&A 동향

□ 4분기(4,682억 달러, 1,360건) 큰 성장을 보이면서 2015년 전년 대비 22.4% 성장한 총 1.1조 달러의 거래기록을 달성

- 인바운드 거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5,122억 달러 규모의 1,230건이 있었고,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 3건을 합치면 약 2,172억 달러가 됨 (전년 대비 126.7% 성장)
- 미국의 엄격한 세율과 유로 약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유럽으로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이 투자 경향은 2014년 대비 61.2% 증가하여 3,500억 달러를 기록

-반대로 달러에 대한 유로의 평가절하는 유럽 기업들이 아웃바운드를 줄이는 경향으로 나타남 (전년대비 27.6% 감소)

〈유럽 분기별 M&A 규모〉



출처 : Mergermarket

■ 참고자료 1. 주요 사례 및 시사점

Pfizer - Allergan ('15.11)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Pfizer가 아일랜드의 제약회사 Allergan을 1,837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거래는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으로 함의. 합병 후 Pfizer의 국제 영업본부는 뉴욕에, 본사는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으로 예측됨. 이번 합병은 실질적으로 Pfizer가 Allergan을 인수하는 형태이지만 법적으로는 Allergan가 Pfizer를 인수하는 '역 합병'으로 설계되어 더블린이 합병 회사의 소재지가 됨.

▶ 딜 클로징 이후 3년 동안 20억 달러가 넘는 실효적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됨. 하지만 Pfizer가 합병 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 본사 이전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됨. 실제로 미국의 법인세율은 35%, 아일랜드는 12.5%로 큰 차이가 남.

AB InBev - SABMiller ('15.11)

벨기에의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 InBev가 영국의 SABMiller를 1,203억 달러에 인수하는 협상을 11월 11일 체결. 이것은 세계 M&A 거래 사상 세 번째로 큰 거래가 됨. 합병 이전 AB InBev와 SABMiller는 각각 세계 시장점유율 20.8%, 9.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 약 30%에 달하는 세계 최대 맥주회사가 탄생하게 됨. 이 거래는 AB InBev가 아프리카지역과 같은 신흥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행한 것. SABMiller는 이미 런던과 요하네스버그에 상장되어 있음.

▶ 딜 클로징 이후 4년 동안 AB InBev는 최소 매년 14억 달러에 달하는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시장에서도 지난해 AB InBev는 오비맥주를 인수하였고, 이것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향후 국내에서 AB InBev 계열사인 오비맥주와 SABMiller코리아간의 합병 가능성도 예측됨.

롯데케미칼 - 삼성 정밀화학, 삼성SDI (‘15.10)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이 삼성정밀화학의 지분 31.13%, 삼성SDI의 전자 재료 사업부문을 제외한 케미컬 사업부문의 지분 90%,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과의 조인트벤처인 삼성 BP케미컬의 지분 전체를 인수함. 삼성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화학 산업 계열사를 정리, 롯데그룹은 기존 화학 산업과 함께 화학 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됨. 인수 규모는 24.7억 달러.

▶ 이 거래는 롯데 케미칼이 정밀화학 분야와 전문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행함. 삼성 그룹 또한 석유화학 산업에서 철수하고 주요 분야인 전자산업과 금융 사업에 집중하게 됨.

SK텔레콤 - CJ헬로비전 (‘15.11)

한국의 1위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고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부문 업체인 CJ헬로비전의 지분 30%를 4.4억 달러 규모에 인수. CJ헬로비전 또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를 27.1억 달러 규모의 주식 스왑 방식으로 인수.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주주이며 합병 이후 75.2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이 거래는 SK브로드밴드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로써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일각에서는 알뜰폰 1위 업체를 합병하는 것은 정부가 오랜 기간 추진해온 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 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반발을 사기도 함.